

손흥민, EPL 리그 홈경기 5G 연속골

시즌 11호골과 1도움 기록...토트넘, 에버턴에 4-0 완승
팀 역대 리그연속 골타이...내달 1일 맨유전 득점시 대기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6·가운데)이 14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EPL 23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0 완승에 일조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왼쪽), 달리 알리(오른쪽)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6)이 리그 경기에서 홈 5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시즌 11호골을 신고했다. 손흥민은 14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EPL 23라운드에서 선제골과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0 완승에 일조했다. 이번 시즌 11번째, 리그 8번째 골이다. 무엇보다 리그에서 홈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새로운 역사에 한 발 다가갔다. 손흥민이 골

을 넣은 후 다섯손가락을 펼치는 세리머니를 펼친 이유다. 역대 토트넘 선수의 리그 홈 최다 연속경기 골 기록은 5골이다. 손흥민에 앞서 2004년 저메인 데포가 기록했다. 14년 만에 타이가 나온 것이다. 손흥민이 다음달 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골로 공식 경기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진출 통산 40골도 신고했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2015~2016시즌부터 토트넘 유니폼

을 입은 손흥민은 데뷔 시즌 8골(리그 4골·챔피언스리그 3골·FA컵 1골), 2016~2017시즌 21골(리그 14골·FA컵 6골·챔피언스리그 1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 11골(리그 8골·챔피언스리그 3골)을 기록 중이다. 후반 2분 해리 케인의 골을 도우며 시즌 6호, 리그 4호 도움도 올렸다. 1골 1도움으로 필립 날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완승을 거두며 5위(13승5무5패 승점 44)를 굳건히 지켰다. 최근 5경기에서 4승1

무의 가파른 상승세다. 토트넘은 최전방 케인을 중심으로 손흥민, 달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앞세워 초반부터 파상공세를 펼쳤다. 첫 골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0-0으로 팽팽한 전반 26분 오리에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하게 때린 크로스를 오른쪽으로 방향만 바꿔 에버턴의 골망을 흔들었다.

오리에의 크로스는 사실상 슈에 가까울 만큼 강하고 낮게 깔렸지만 골문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좋았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로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불안한 리드를 벗어나게 한 것도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후반 시작 2분 만에 손흥민의 도움을 받은 케인이 추가골을 넣었다.

과정이 수순적이다. 손흥민이 미드필드 라인으로부터 길게 온 땅볼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에버턴 수비수가 접근하자 마르세유던(축구공을 한 발로 잡은 상황에서 이 발을 축으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상대를 따돌리는 기술)으로 따돌렸다. 실전에서 보기 힘든 기술이다.

공상 골문으로 돌진한 손흥민은 왼발로 강하고 낮게 깔아서 차 케인의 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후반 13분 강한 왼발 슈트로 왼쪽 골포스트를 때리기도 했다. 멀티골 기회를 낚았지만 이날 맹활약에 충분한 양념이 됐다.

토트넘은 후반 14분 케인 36분 에릭센의 추가골로 4-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종이리 부상에서 회복한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복귀해 골타임을 뛰었다.

그라운드에 모습을 보인 건 지난해 12월19일 에버턴과 경기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폴타임을 소화하며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했다. 스완지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FA 미계약자 결국 구단에 항복할까?

남은 7명 중 5명 조율 중...최준석·이우민은 無

1월 중순 FA 미계약자는 아직 7명이 남아 있다.

12월 중순 NC가 손시헌, 이종욱, 지석훈 3명의 FA 계약을 발표한 뒤 올 시즌 뒤 FA 자격을 얻은 선수로는 채태인이 넥센-롯데의 사인&트레이드를 통해 한 달 만에 FA 계약 소식이 들렸다. 그만큼 FA 시장 막바지 계약 성사는 힘들다. 그 사이 마구에서 돌아온 김현수의 LG 계약 소식이 있었다.

14일 현재, FA 미계약자는 7명이다. 김주찬(37), 김승희(37), 정근우(36), 이우민(36), 최준석(35), 이대형(35), 안영명(34)이다. 모두 30대 중후반 선수들. 구단의 냉정한 제안과 선수의 기대는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소속팀의 제안 자체도 없는 선수도 있다.

1월말까지 계약을 한다던 스포츠클럽에 참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가 캠프를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적정 시기다.

두산과 김승희는 큰 틀에서 합의는 한 상태다. 두산은 불펜에서 활약한 김승희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전망이다. 15일 구단 시무식 즈음에 최종 합의, 발표가 예상된다.

김주찬, 정근우, 안영명은 구단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제시했고, 선수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김주찬과 정근우, 안영명은 계약 기간에서 어렵다.

KIA는 김주찬에 2+1년을 제시했다. 우리 나이가 40살까지는 보장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주찬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는 정근우, 안영명에게 2년 계약을 제안했다. 한화는 이전 30대 중후반 FA 계약에서 실패가 많았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계약 기간 2년을 고수하고 2년 후에도 충분히 기량이 검증된다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선수가 버틴다고 구단의 최종안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계약 시기는 선수가 언제든 굶지 않게 달려 있다. 선수가 구단에 항복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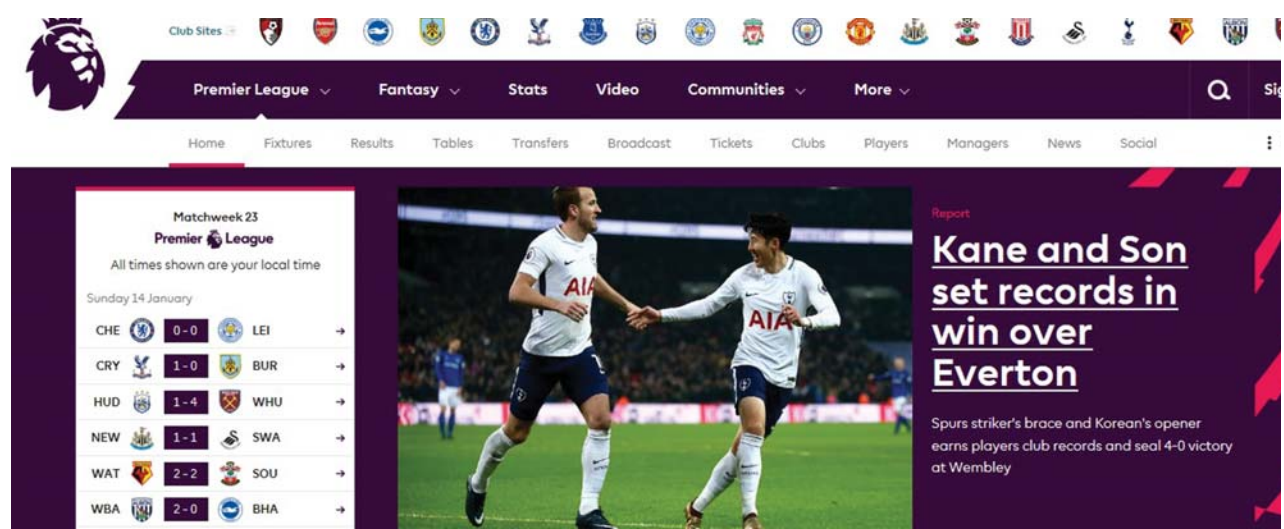
시즌 막바지 무릎 부상을 당한 이대형은 수술 후 재활 과정이다. 올 시즌 중반에 복귀가 예상돼 선수층이 좋은 조건을 받기 어렵다. 3차례 정도 협상했지만, 계약 기간과 금액 모두 큰 차이만 확인했다고 한다. kt는 조만간 이대형이 곧 재활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면 다시 협상할 예정이다. kt는 외야전에 외국인 로하스를 비롯해 유한준, 오정복, 이진영 등 숫자는 많은 편이다. 이대형의 요구가 관철되긴 힘들다.

반면 최준석(35)과 이우민(36)은 원소속팀 롯데로 돌아가긴 힘들다. 롯데는 12월 체태인을 사인&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이대호와 체태인이 1루수와 지명타자를 분담, 최준석이 설 자리가 없다. 롯데는 일찌감치 팀 전력 구상을 할 전망이다. 15일 구단 시무식 즈음에 최종 합의, 발표가 예상된다. 이우민에게도 코치직 제의를 했지만, 이우민은 선수생활 연장을 희망하며 고사했다. 최준석이 사인&트레이드 돌파구를 마련한다 해도 관심을 보이는 타구단도 없다.

한편 FA제도가 실시된 후 FA를 선언했다가 계약에 실패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노정진, 차명주, 이도형 등이 있었다. 최영필은 2010시즌을 마치고 FA 계약에 실패하며 1년을 쉬고 2011시즌 후 한화가 보상권리를 포기하면서 SK와 계약에 성공한 적은 있다.

EPL 홈페이지 메인 장식한 손흥민 '평점 9.2'

손흥민, 구단 SNS통해 "동료 없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건 힘들어"



손흥민(토트넘)이 14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3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사진은 손흥민으로 메인 장식한 EPL 공식 홈페이지.

손흥민(26·토트넘)의 결별함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집어삼켰다. 손흥민은 14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EPL 23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10일 스토크시티와의 16라운드를 시작으로 12월14일 브라이튼 호브 앨비언전(17라운드), 12월

26일 사우샘프턴전(20라운드), 이달 5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22라운드)에 이어 이날까지 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에 앞서 2004년 저메인 데포가 달성한 적이 있는 리그 홈 5경

기 연속골은 역대 토트넘 선수의 리그 홈 최다 연속경기 골 기록이다. 이날 해리 케인의 2번째 골을 돕는 장면도 일관이었다. 미드필드 라인으로부터 길게 온 땅볼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에버턴 수비수가 접근하자 마르세유던(축구공을 한 발로 잡은 상황에서 이 발을 축으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상대를 따돌리는 기술)으로 따돌렸다. 실전에서 보기 힘든 기술이다.

이를 반영하듯 EPL 공식 홈페이지는 이날 2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소속 EPL 최다골(9골) 기록을 갈아치운 해리 케인과 함께 손흥민으로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EPL은 "손흥민과 케인이 에버턴을 상대로 기록을 세우며 승리했다"며 손흥민의 리그 홈 5경기 연속골과 케인의 최다골을 자세히 다뤘다. 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9.2점의 높은 평점을 줬다.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9.5점을 받은 케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손흥민은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승리할 자격이 충분했다. 즐거운 하루였다"면서도 "동료 없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맨유, 모친상 박지성 위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날 증조할머니도 별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모친을 잃은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소년본부장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맨유는 13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은 모친상을 당한 박지성의 마음을

함께 위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박 본부장의 모친 장명자씨가 지난해 연말 영국 런던 방문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 치료 중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 절차와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선데 달린격으로 같은 날 친

할머니 김매씨도 향년 82세 나이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요양 병원에서 별세 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박지성은 지난 2005년 7월 맨유에 입단해 2012년까지 7년간 맨유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리그 우승 4번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한 번을 경험했다. 팀 역사상 92번째로 통산 200경기 이상을 출장한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박지성은 은퇴 후 맨유의 엠버서더(홍보대사) 활동과 함께 축구 행정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물며 화합에 몰두했다.

지난해 11월 8일 축구협회의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유소년본부장 자리에 앉은 박지성은 지난 달 귀국해 업무를 파악 한 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JS파운데이션 재능화행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 후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연이은 비보로 슬픔에 잠겼다.

"소프트뱅크, 육성 강화 한국 명장 김성근 영입"

김성근(76) 전 한화 이글스 감독이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이례적인 코칭 교문으로 초빙됐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13일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코치의 코치'로 한국의 명장 김성근 전 감독을 초빙했다"고 보도했다.

닛칸스포츠는 "소프트뱅크가 육성 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코칭 교문을 초빙했다"며 "한국에서 7개 프로팀을 맡으며 '아신'으로 불린 전설적인 감독이 소프트뱅크 육성

을 더욱 강화한다"고 전했다. 김 전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두 번째로 초빙됐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그 절저한 지도 방식이 잘 알려져 있다. 소프트뱅크는 3군 창설 이후 8년째 그 동안 육성 선수를 리그 대표 선수로 성장시켰다. 김 전 감독 초빙으로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교육까지 구단의 육성 방침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뉴스